

전북도, 바이오융합산업 메카 꿈 실현 '첫걸음'

도·전주시·전북대·전북TP·연구기관·기업 등 모여 '전북 바이오 포럼' 개최

전북도는 29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바이오특화단지 유치에 위한 '전북 바이오 포럼'을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5월 바이오를 국가첨단 전략기술산업으로 지정하고, 고품질의 오가노이드를 개발·적용할 특화단지 공모를 계획하고 있다.

전북도는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의 수도답게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메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도전에 나설 계획이

다.

도와 전주시, 전북대학교가 공동 주최하고, 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한 이번 포럼은 전북 바이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국가첨단 전략기술 바이오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와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 및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주제 발표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윤석진 원장이 '지역혁신, 협력의 생태계 전략', △재생의료진흥재단 박

소라 원장은 '첨단재생의료 발전 방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황성은 단장은 '의료기기 산업 발전 방향', △안전성평가연구소 정은주 소장은 '오가노이드 활용 대체특성평가 기술개발', △전북대학교병원 유희철 원장은 '융합의학의 현재와 미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권석운 부원장은 '바이오 의약품 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해 각각 강연을 펼쳤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권덕철 교수

(前 보건복지부장관)를 좌장으로, 발표자 5명과 오택림 미래산업국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박각노 단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용준 단장, (주)네스 트랜바이오 양지훈 대표,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주) 장준호 이사, 원광대학교 병원 이승진 센터장, 한국식품연구원 김명선 본부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의를 벌였다.

전북도는 이번 포럼을 통해 전세계가 바이오 경제로 진입함에 따른 바이오 산업 동향 파악과 전북 바이오 방향성 모색 등으로 차별화된 바이오특화단지 유치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중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전북형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결코 꿈이 아니다. 전북도의 여건과 강점을 활용하고,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한다면 100% 현실로 만들 수 있다"며, "우리 전북도는 이차전지에 이어 '제2의 기적'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인태 전주 부시장은 "이번 포럼이 전북 바이오 특화단지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신호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전주시는 전북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국찬 전북대학교 대외·취업부총장은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결의를 다지고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모두의 열원과 열정을 보여주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전북 바이오 특화단지를 위해 모두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9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바이오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전북 바이오 포럼'이 열린 가운데, 김중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김인태 전주 부시장 등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시브랜드 개발 공청회

도시브랜드 개발 막바지 단계... 출범하는 날, 새 브랜드 소개 예정

전북도가 특별자치도 출범을 약 1달 반 앞두고 새롭게 선보일 도시브랜드의 최종 의견수렴에 나선다.

도는 29일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도시브랜드 개발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전북도민, 도의회, 관

련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브랜드 개발 추진상황에 대한 내용 공유를 시작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시브랜드 전략과 상징물 후보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의견 청취가 이뤄졌다.

먼저 황태규 우석대 교수가 '전북특

별자치도 도시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주제로 발제해 브랜드 중심의 특별자치도 마케팅 전략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어 개발사에서 그간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개발한 도시브랜드 후보안에 대해 도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제안설명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브랜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강태창 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인권

도의회 농산임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술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현 디파크브랜딩 고문 △양현규 도민참여단 전북+(전북플러스) 대학생위원장의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공청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 발전 의지를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도시브랜드 최종안을 선정하기 위해 도의회, 관련분야 전문가, 도민참여단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청취했다.

익산시, 집중호우 피해 하천 기능복구공사 본격 추진

시급한 구간 우선 시작

익산시가 올해 여름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하천의 기능복구를 위해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시는 지난 6월과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하천에 대해 올해부터 일부 기능복구공사를 추진해 내년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있다.

시는 재해복구사업 사업비 118억원(국비 110억, 지방비 8억)을 확보했으며, 이중 올해 투입 가능한 국·도비와 시비를 활용해 내년 우기철 전까지 시급한 구간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사

를 시작했다.

우선 가장 피해가 큰 산복천 제방 유실 구간은 복구사업이 확정된 이후 10월부터 설계를 추진해 12월부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연약지반 처리 및 제방 보강을 통해 집중호우에 대비할 예정이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도민체감 이벤트 '다채'

김관영 지사 '성공예금' 1호 가입으로 개시 알리

전북도는 내년 1월 18일 '특별한 시작, 함께 만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은행, 기업, 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범업 달레이 홍보를 시작했다.

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앞두고 금융기관과 협력해 기념통장 출시, 전북지방우정청과 기념우표 발행, 식품 및 주류기업과 제품 라벨 홍보 등 출범 전까지 도민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일상 생활과 밀접한 홍보 콘텐츠 개발 및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한다.

도민체감 행사는 도청 야외광장에서 특별한 시작을 알리는 전야제와 각 시군이 함께하는 축하 행사를 개최하여 출범 분위기를 고조시킨다는 구상이다.

또, 출범 당일에는 출범식과 함께 행정정보시스템 변화를 알리는 주민등록등본 발급 퍼포먼스도 진행할 예정이다. 출범 이후에도 1호 신생아 축하 이벤트, 찾아가는 도민 보고회, 유통기업과의 특별 할인 행사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29일 첫 이벤트로 출범 D-50일을 기념해 농협은행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예금'을 선보였으며, 김관영 도지사는 도청 농협지점을 둘러 처음 가입 신청을 했다. 이후

도내 각 기관장 등도 성공예금 동참이 기대되며 도민 참여 분위기는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공예금은 내년 3월 29일까지 농협은행 전북 관내 영업점에서 판매되며, 1인 1백만원 이상 정기예금으로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연간 평균 잔액의 0.1%를 전북특별자치도 공익기금으로 적립해 전북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매일 신규가입 고객 선착순 128명에게 커피쿠폰 제공하고, 가입자 대상으로 경품 추첨을 통해 로봇 청소기, 한우세트 등도 제공한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는 특별한 사람이 만들어진다. 도민 한분 한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특별한 전북을 만들 수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순간을 도민들과 기념하기 위해 유관기관, 기업 등과 함께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 장정민 전북본부장은 "성공예금 출시에 이어 임직원 명함 변경 및 내년 1월과 D+100일, D+200일에는 하나마트(전주 유통) 할인행사 등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NH농협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주민 증가 따른 협업 모색

전라북도·국가정보원 지부 외국인 인력관리 협의회

전북도(도지사 김관영)와 국가정보원 지부는 29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도내 외국인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관별 협력사항 모색을 위해 전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 경찰청 등 외국인 관련 유관기관과 '외국인 인력관리 협의회'를 개최했다.

외국인 인력관리 협의회는 도내 외국인 인력 수요 확대에 따른 다양한 지역사회 이슈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도내 외국인 유관기관과 함께 의견을 공유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전북도, 전북경찰청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북연구원, 경제통상진흥원, 국제협력진흥원 등 분야별 외국인력을 관리하는 유

관기관을 비롯해 일선에서 직접 외국인력을 접하는 전국 일자리협의회, 그리고 관련 전문가 등 외국인 정책 관계기관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인구문제 패러다임이 출산 장려에서 이민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른 외국인 유입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날 기초발언에 나선 설동훈 전북대 교수는 "외국인 인력은 지방소멸과 지역의 인력 부족 해결의 기회지만, 이민정책에 수반되는 사회적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면도 존재한다"며, "관계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지역민들도 외국인 문화 종교에 대한 이해를 높여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